

# “반드시 투표” 92%까지... 18대 투표율 넘나

(75.8%)

文 ‘사전투표 독려에 총력’ 安 ‘부동층 투표장 끌어내기’  
洪 ‘TK서 동남풍’ 劉 ‘수도권 공략’ 沈 ‘청년·여성 집중’

5·9장미대선이 ‘황금연휴’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대 대선을 뛰어넘는 투표율을 기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 캠프별로 득실 계산과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하면 유권자 5명 중 4명 가량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게 공통적인 흐름이다.

2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응답자 79.1%가 ‘19대 대선에서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만 70.2%에 이르러 2012년 제18대 대선 때 투표율 75.8%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24~25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7년 3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기준치 부여)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92.2%나 됐다.

이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높았던 제13대 대선 투표율 89.2%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징은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20~30대 젊은 세대의 투표 의향이 높다는 점이다. 이날 CBS-리얼미터 조사

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답변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9~29세’로 77.3%에 이르렀다.

투표율 관측에 각 후보 캠프는 저마다 ‘높으면 유리하다’며 상황 분석과 맞춤형 전략 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투표율이 높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범국민적 정권교체의 열망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론이 그대로 투표까지 이어져야 정권교체의 기수인 문 후보에게 힘이 실린다는 것이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당 안

철수 후보 측은 더욱 절박하다. 적극적인 지지층을 갖춘 문 후보와 달리 투표율 망설이는 소극적인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역전을 노릴 수 있어서다.

김성식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겸 전략본부장은 “투표행위 자체에도 고민이 많은 이분들을 적극 독려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전통적 지지층인 대구·경북(TK) 등 영남권과 50대 이상 장·노년층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홍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시작 후 대구 서문시장을 두 번이나 찾는 등 영남에서 ‘동남풍’을 일으켜 총정을 지나 수도권에 상륙하는 동선을 짜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홍 후보와

달리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뒷밭’에만 기대지 않고 최근 유 후보에 호감을 보이는 수도권과 2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여야겠다는 전략이다.

영남과 노년층의 지역·세대 대결 구도를 자극하지 않고 ‘개혁 보수’의 새 텃밭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측은 심 후보가 여성과 20~30대 세대의 지지를 많이 받는 만큼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 후보 측 관계자는 “투표율 자체보다는 세대별 투표율에 따라 후보 간 유·불리가 나올 것”이라며 “유불리를 떠나 당선자의 대표성·정당성을 위해 투표율은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연합뉴스



상담 기다리는 구직 청년들

27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청년드림 페스티벌’에 참여한 구직 청년들이 자신들의 적성에 맞는 직종과 관련해 인력관리자로부터 상담받기 위해 줄지어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5월 1~2일 발표 여론조사 막판 변수... 3일부터 공표 금지

文 “45% 넘겨 굳히기” 安 “오차 범위내 추격하면 역전”

文·安·洪 삼각구도 영남·보수 표심 흐름도 관심사

5월 3일부터 대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됨에 따라 1~2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 막판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다음 달 1~2일 각 언론사를 중심으로 최소한 10개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선 막판 여론조사 결과는 실질적으로 대선 판세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부동층의 최종 선택에 영향을 주고 지지층의 결집과 기권 등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대선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관전 포인트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40% 후반 지지율 기록 여부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어느 정도 추격을 하느냐다. 여기에 보수·영남 표심의 흐름도 관심사다.

일단 문재인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현재 30%대 후반에서 40% 초반대의 지지율을 넘나들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2위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격차가 커지고 있지만 확고하게 선두를 굳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 후보 측에서는 오는 1~2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 45% 후반대의 지지율을 기

록하면서 대세론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1주일 동안 총력을 다 한다면 대선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보이며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승기는 문 후보로 기울었다”며 “오는 2일 이전에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문 후보의 대세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9일 대선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율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 측에서는 막판 스퍼트로 문재인 후보를 최대한 따라붙어 대역전극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1~2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외로 문 후보를 따라 붙는다면 호남 민심의 지지가 결집되는 것은 물론 보수 표심의 전략적 선택이 더

해지면서 막판 승리를 일구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 후보 측에서는 통합 내각 구성 등 대형 이슈를 던지면서 판 흔들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막판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를 오차범위 내로 따라붙는 것”이라며 “최소한 한 자릿수 정도의 지지율 차이만 유지한다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남·보수 표심의 흐름도 관심사다. 현재의 흐름대로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문재인 후보가 벌이는 치열한 삼각 구도를 형성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막판 대선 판도 변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안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선두를 달리는 결과가 나온다면 막판 나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보수·영남 표심을 결집, 약진한다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반론(반 문재인) 연대가 거론될 수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 전직 지방의원 81명 안철수 지지 선언

다문화가족지원연합회도

광주 전직 지방 의원 81명은 27일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원 14명과 구의원 67명 등 전직 지방의원들은 이날 선언문을 내고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깨끗한 정치인,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치인, 4차 산업혁명시대의 흐름에 맞춰 세계적 트렌드를 읽고 당면한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사단법인 다문화가족지원연합회 동포회도 성명에서 “민족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주체로서 우리의 권

리와 존엄을 찾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재장애인협회도 선언문을 통해 “김안배 협회장 및 13만 회원은 안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라며 “안 후보만이 병든 한국사회를 치유할 수 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정해춘 전 한국가맹사업협회장과 안종모 예맥코리아 상임고문 등으로 이뤄진 공정사회소통연합회도 성명에서 “공정과 소통, 통합과 화합의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적임자가 안철수”라며 안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수도권서 전남 우수브랜드 쌀 릴레이 마케팅

전남도·전남농협, 6월말까지

전남도가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오는 6월 말까지 경기도 고양·성남, 서울 양재동 등 국내 쌀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에서 전남 우수브랜드 쌀 릴레이 마케팅에 나선다. <관련기사 17면>

전남 우수브랜드 쌀 릴레이 마케팅에는 전남지역 10개 농협 RPC가 함께 참여한다. 전남 쌀의 우수성 홍보, 단일 품종으로 새롭게 리뉴얼된 ‘풍광수토’로

만든 떡 시식행사, 사은품 증정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 관심을 확보하고 전남 10대 브랜드 쌀의 신규 입점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생활의 다양한 패턴 변화로 개별 소비자의 쌀 구매 비율이 낮은 점을 감안, 대

량으로 구매하는 대형 식자재 매장 등을 중심으로 입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2016년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담양 금성농협의 ‘대슬 맑은 쌀’과 우수상을 받은 함평 나비쌀, 전남쌀 10대 우수 브랜드 등을 집중 홍보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쌀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이종훈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수도권 소비자에게 전남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는 등 대형 매장 입점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천연자원 기능성 제품 마케팅 간다

천연물 식의약품 등

142만달러 수출상당

전남에서 생산된 천연물 식의약품, 기능성화장품, 미생물농약 등 바이오활성 소재 제품이 말레이시아에 수출된다.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27일 “전남 바이오활성소재산업 해외마케팅 수출지원단”이 지난 22일까지 4일간 말레이시아에서 수출 상담회 및 전남 제품 판촉활동을 벌여 142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들은 모두 전남의 친환경 천연자원을 활용한 제품이다.

이번 상담회 및 판촉행사는 전남지역 1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말레이시아 현지바이어 15명,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에서 초청한 바이어 10명과 수출상담을 했다. 현지 소비자 선호도를 확인하

기 위한 시음 및 체험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말레이시아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들은 전남지역 기업의 뷰티케어 제품과 유기농 야채수 등 가공식품에 큰 관심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수출입 전문 유통사인 피데스(FIDES)사, 쿠알라룸푸르 국제상공회의소와 MOU를 체결하고 전남의 생물산업 기업 제품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안기홍 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전남 친환경 농산물, 천연자원에 기반하는 바이오활성소재 제품이 동남아 시장에서 충분한 상품성과 경쟁력을 갖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역 바이오제품 수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보장  
무료 청력테스트 상담점검  
서울 본사서비스와 동일 서비스 제공

오티콘 보청기 홈케어 서비스  
전라도, 경상도 지역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고객중심 무료 맞춤형 서비스

농성역 또는화정역 1호선에서 100m가량 직진 후,1층 102호로 오시면 됩니다.  
광주지사 직영점 062-364-8800

oticon PEOPLE FIRST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